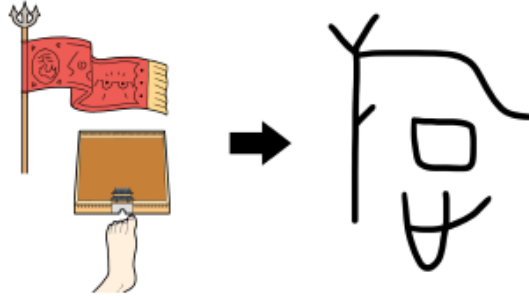


3(2)  
-  
231

회의문자①



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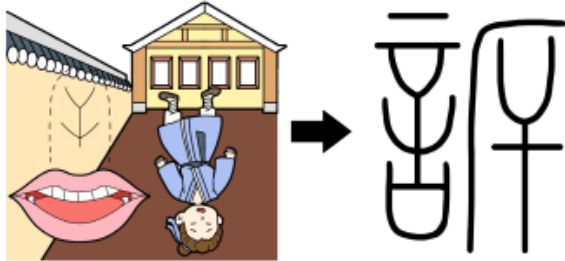
돌[廻]  
선

旋자는 '돌다'나 '회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旋자는 𡗗(나부길 언)자와 疋(발 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𡗗자는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나부끼다'나 '깃발'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여기에 발과 성(城)을 함께 그린 疋자가 결합한 旋자는 깃발을 높이 들고 성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되돌아와야 할 것이다. 그래서 旋자는 전쟁에 승리한 후 다시 집으로 되돌아온다는 의미에서 '돌다'나 '회전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232

회의문자①



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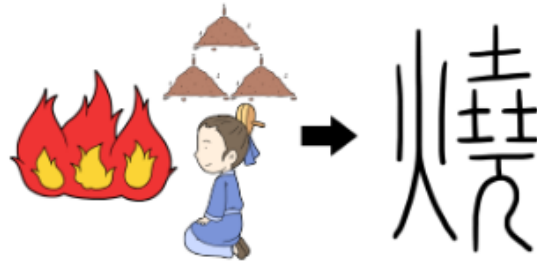
호소할  
소

訴자는 '하소연하다'나 '호소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訴자는 言(말씀 언)자와 斥(물리칠 척)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斥자는 집 밖으로 사람을 내쫓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내쫓다'나 '물리치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물리치다'라는 뜻을 가진 斥자에 言자를 결합한 訴자는 '말로 물리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訴자에서 말하는 '하소연하다'라는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여 물리쳐 주기를 바란다는 의미인 것이다.

소전	해서


3(2)  
-  
233

회의문자①



燒

사를  
소(·)

燒자는 '불사르다'나 '불태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燒자는 火(불 화)자 堯(요임금 요)가 결합한 모습이다. 堯자는 머리에 흙덩이를 얹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으로 '높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높다'라는 뜻을 가진 堯자에 火자가 더해진 燒자는 나무장작을 높이 쌓아 태운다는 뜻이다.

燒

소전

燒

해서

3(2)  
-  
234

회의문자①



疏

소통할  
소

疏자는 '소통하다'나 '트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疏자는 疒(발 소)자와 流(깃발 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流자는 물에 떠내려가는 아이를 그린 것으로 본래 의미는 '떠내려가다'나 '흐르다'이다. 여기에 발을 뜻하는 疒자가 더해진 疏자는 길을 가는데 막힘이 없다는 뜻이다. 즉 길을 걷는 것이 물 흐르듯이 매우 순조롭다는 의미인 것이다.

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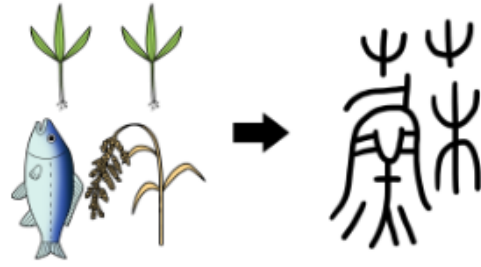
소전

疏

해서

3(2)  
-  
235

회의문자①



蘇

蘇자는 '되살아나다'나 '소생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蘇자는 艹(풀 초)자와 穌(깨어날 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穌자는 물고기와 벼를 함께 그린 것으로 '깨어나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깨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穌자에 艹자를 결합한 蘇자는 본래 '차조기'라 하는 풀을 뜻했었다. 차조기는 약재로 쓰이는 풀의 일종으로 소화기나 호흡기 질환을 다스리고 신경계와 피부병 증상에도 효험이 있다고 하는 다재다능한 약초이다. 蘇자는 이렇게 영험한 효과가 있는 차조기를 뜻하다가 후에 '되살아나다'나 '소생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되살아날  
소

蘇

금문

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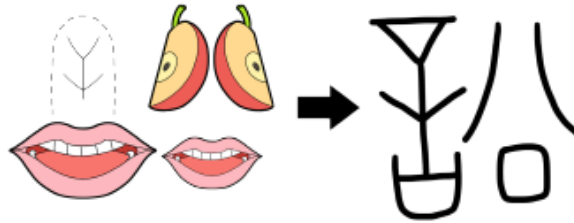
소전

蘇

해서

3(2)  
-  
236

회의문자①



訟

訟자는 '송사하다'나 '다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訟자는 言(말씀 언)자와 公(공평할 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公자는 사물을 절반으로 나눈 모습을 그린 것으로 '공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여기에 言자가 결합한 訟자는 "말을 공평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공평하다'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송사는 어떠한 분쟁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래서 訟자는 주로 재판과 관련된 글자로 쓰이고 있다.

송사할  
송:

訟

금문

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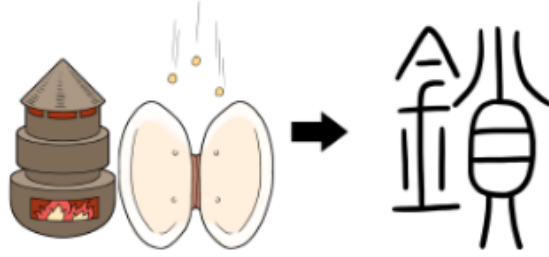
소전

訟

해서

3(2)  
-  
237

형성문자 ①



鎖

쇠사슬  
쇄:

鎖자는 '쇠사슬'을 뜻하는 글자이다. '쇠사슬'은 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金(쇠 금)자가 의미요소로 쓰였다. 사실 鎖자의 유래는 명확하지 않다. 鎖자의 발음역할을 하는 賁(쇄)자가 지금은 쓰이지 않는 글자이기 때문이다. 발음도 유추만 가능할 뿐 어떤 뜻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小(작을 소)자와 貝(조개 패)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본래는 '작은 조개'나, '적은 돈'이라는 뜻으로 쓰였을 것으로 짐작은 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鎖자가 왜 '쇠사슬'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유추하기는 어렵다.

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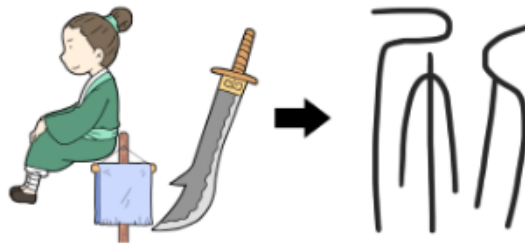
소전

鎖

해서

3(2)  
-  
238

회의문자 ①



刷

인쇄할  
쇄:

刷자는 '쓸다'나 '인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刷자는 𠂔(쓸 쇠)자가 생략된 것과 刀(칼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𠂔자는 천을 들고 있는 사람을 표현한 것으로 '쓸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𠂔자는 후에 又자가 생략되고 刀자가 결합하면서 지금의 刷자가 되었다. 刷자는 본래 '술질하다'나 '털다'라는 뜻을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러나 목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刷자는 '인쇄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목판에 먹칠하고 종이를 붙여 먹물이 잘 스며들도록 술질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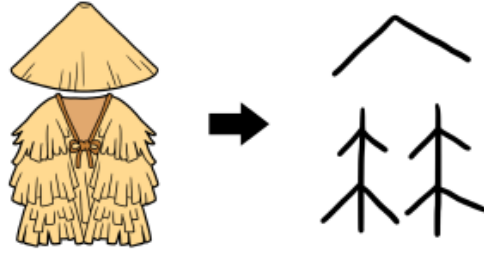
소전

刷

해서

3(2)  
-  
239

상형문자 ①



衰

쇠할 쇠

衰자는 '쇠하다'나 '약하다', '도롱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衰자는 우비의 일종인 '도롱이'를 그린 것이다. 고대에는 마른풀을 엮어 비옷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도롱이'라 했다. 衰자의 금문을 보면 꺾인 획 아래로 艹(풀 초)자가 𣏟(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풀을 엮어 만든 도롱이와 모자를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다. 도롱이는 마른풀을 엮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불품이 없었다. 비를 잘 막아주지도 못할뿐더러 오래 사용하기도 어려웠으므로 후에 '쇠하다'나 '약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다시 艹자를 더한 蓑(도롱이 사)자가 '도롱이'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𣏟

금문

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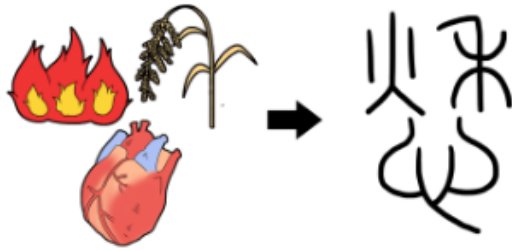
소전

衰

해서

3(2)  
-  
240

회의문자 ①



愁

근심 수

愁자는 '근심'이나 '시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愁자는 秋(가을 추)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秋자는 '가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그런데 '근심'을 뜻하는 愁자와 '가을'은 무슨 관계인 것일까? 그것도 가을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데 말이다. 여기에는 많은 추측이 가능하다. 예전에는 추수가 끝나면 세금을 거둬갔으니 그것이 걱정일 수도 있고 곧 추운 겨울이 올 것이니 그것 또한 걱정일 수도 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면서도 근심이 늘어나는 계절이기도 했다.

𣏟

소전

愁

해서